

트럼프의 2025년 무역전쟁과 미중 공급망 탈동조화 영향

How Did Trump's 2025 Trade War Affect the Decoupling of US-China Supply Chains?

» **저자** : Chad P. Bown

» **일자** : 2026년 7월 30일

» **출처**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s://www.piie.com/publications/working-papers/2026/how-did-trumps-2025-trade-war-affect-decoupling-us-china-supply>



- ❖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관세는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더욱 낮추는 계기가 되었지만, 공급망 재편은 산업별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일부 산업에서는 중국을 빠르게 대체하는 공급망이 구축된 반면, 다른 산업에서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대만과 멕시코로의 수입 증가는 반드시 중국과의 탈동조화 때문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의 형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컸다. 따라서 최근 공급망 변화는 단순한 미·중 분리가 아니라 산업별 특성과 기술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중국산 제품에 평균 50% 수준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에도 광범위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025년 한 해 동안 28% 감소했으며,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2%에서 9%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대만과 베트남, 멕시코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였다.
- ❖ 소비자 전자제품에서는 공급망 재편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스마트폰은 애플이 인도 생산기지를 활용하면서 대중국 수입이 급감했지만 전체 미국 수입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 게임기 역시 베트남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전되면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이 2018년 이후 중국 밖에 생산기지를 미리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직후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 ❖ 반면 의류와 신발은 공급망 이동이 제한적이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인도 등이 일부 점유율을 확대했지만 소비자 전자제품처럼 급격한 재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다른 생산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국가 간 관세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된다. 새로운 생산기지로 이전할 경제적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다.

- ❖ AI 산업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서버와 반도체, 관련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만과 멕시코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대만 TSMC가 생산한 AI 반도체와 폭스콘, 콰타 등 대만 기업이 조립한 서버가 멕시코와 대만에서 미국으로 공급되었다. 이러한 공급망은 원래부터 중국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중국과의 탈동조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공급망 형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 자동차 산업에서는 멕시코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자동차 부품 생산이 멕시코로 이전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계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소재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특히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과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을 주며 공급망 재편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 ❖ 결국 2025년 무역전쟁은 미국의 직접적인 대중국 수입을 크게 줄였지만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탈중국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다국적 기업이 사전에 생산거점을 다변화한 전자산업은 인도와 베트남으로 빠르게 이전한 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변화가 제한되었고, AI 산업은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라 대만과 멕시코 중심의 공급망이 형성되었다.
- ❖ 향후 미·중 공급망 변화는 단순한 양국 간 무역 감소보다 가치사슬 전체의 재편과 중국산 부품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정도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AI와 첨단산업의 성장, 희토류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미국의 산업정책과 수출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산업별로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